

최정묵 특허데이터 활용한 민주… 개인정보법 위반



〈15면에서 계속〉 2013년 사회디자인 연구소 소장 고한석은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마이크로 타겟팅이란 전략에 대한 분석이었다. 온라인에서 수집된 정보로 유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지역별 맞춤형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이때 처음으로 “선거는 과학”이라는 구호와 빅데이터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 “선거는 과학이다”는 나중에 2020년 양정철의 선거운동 구호가 된다. 한편 고한석은 빅데이터랩이란 회사를 만들고 최정묵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를 설립한다.

2014년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었던 고한석은 한국선거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방안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우연하게도 2002년 전자개표기를 구매하는 기안을 올린 책임자 조해주가 이 연구의 책임자였다.

최정묵은 신종화와 2016년 ‘공공의 창’이란 회사를 만들어 공동대표를 맡는다. 신종화는 소상공인연구원 부원장이기도 했다. 2017년 최정묵은 2017년 최정묵은 빅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인 “형태인식적 데이터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이용해 마이크로 지리정보를 보정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마이크로 지리 추출장치 및 방법 (Apparatus and Method for Extracting MicroMap)’이란 특허(1017889910000)를 출원했다. 신종화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게 되고 또 같은 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이 된다.

‘공공의 창’은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인텔리사·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휴먼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현대성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곳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의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한다. 최정묵은 문재인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국방부·정책기획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세종시청·성남시청 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자문과 혁신 자문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에 여론 및 데이터 관련 글

을 기고하고 있다.

노무현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국장을 지낸 박시영은 노무현 정권 이후 2008년 6월 월드리서치 이사를 역임하고 2009년 5월 원지코리아컨설팅을 이근형·박승열·이상일·홍태식과 만들었다.

원지코리아의 주주 박승열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위원을 하고 2019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이다. 또 2019년 한국통계학회 부회장·한국 조사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근형은 박승열과 함께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역

임근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63석 예상 의석수를 포스트했다. 이 자료는 원지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이근형에게 제공한 것이다. 또한 원지코리아 박시영은 4월15일 당일 최종 투표율이 66%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고 그가 예측한 163석과 최종 투표율은 최고치인 66.2%를 달성했다.

박시영 대표는 1968년 전북 전주 출신이다. 1988년 건국대 경제학과에 입학했고, 1995년 광진구청장 선거 참모로 뛰면서 실전 선거를 처음 체험했다. 이후 구청에서 근무하다 벤처 사업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사모에 참여해 2002년 국민경선단 대책위 공동위원장·노사모 사무총장으로 100

~2019년 5월까지 역임할 때 고한석이 부원장이었다. 이후 김민석은 양정철에게 민주연구원 원장 자리를 넘겼다.

양정철은 2019년 6월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지방자치 단체 11곳(서울·경기·경남·부산·울산·충북·전북·강원·대전·충남·광주)을 방문해 MOU를 체결했다.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이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양정철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 정보가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최정묵의 빅데이터 특허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였다.

최정묵의 빅데이터 추출 특허를 실현시키기 위해 양정철은 지방자치 단체 11곳과 MOU를 맺었고 최

이다. 그가 속한 중국과학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AI 굴기 드라이브의 공공기관인 것이다.

2019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시크릿이란 기획으로 왕후닝 소개 내용을 방영했다. 해당 기사 역시 현재는 삭제됐다.

양정철은 박정 의원과 2019년 7월9~12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왕후닝을 만나 MOU를 맺고 텐센트를 방문했다. 이때 양정철은 왕후닝을 만난다. 왕후닝은 시진핑의 측사이다.

양정철이 중국 공산당과 MOU를 맺고 찾아가는 곳은 미국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이다. CSIS는 홍석현이 이사로 있었고 SK 최태원의 차녀 최민정이 근무 중인 곳이다. 최민정은 중국 투자회사인 흥이투자(Hony Capital)에 입사해 글로벌 인수합병(M&A)팀에서 근무한 경력이다. 최민정은 2020년 12월 CSIS 칼럼을 통해 북한 나진항을 한반도 물류 허브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CSIS는 친중 성향의 미국 민주당 싱크탱크로 “중국과의 건설적 논의의 틀”(Constructive Framework with China)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석현이 CSIS 이사직을 역임한 것을 보면 민주당의 양정철과 SK가 CSIS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도 CSIS의 이사직을 역임한 홍석현이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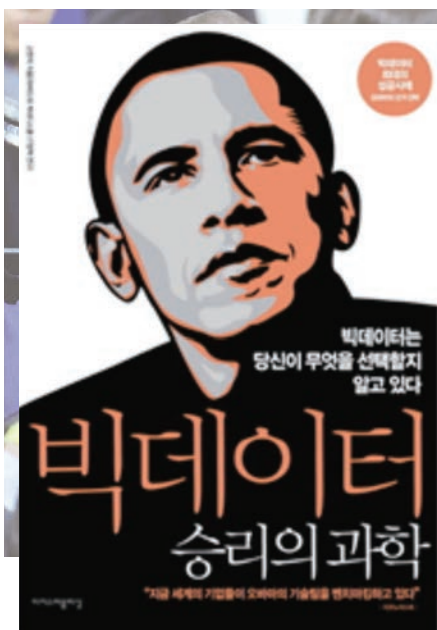
같은 달 7월30일 중국과학원 송승민 이사는 민주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엔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처음 180석 얘기가 나왔다. 송승민이 있는 자리에서 지난 선거에서 야당의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180석 확보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는 토의를 한 것은 마치 180석을 목표로 세우겠다는 것을 송승민에게 보고하는 모양새이다. 이때 함께 참석한 박정 의원은 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며 중국 국립 우한대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을 졸업한 사람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7월 박정 의원은 “빅데이터 민주화가 4차 혁명 이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사드 외교단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2020년 2월 중국 유학 총교우회·중국 우한대 총동문회에서 마스크 200만 장과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방호복·보호경 각 10만 개 등을 구매할 비용 32억 원을 보냈는데 중국 유학 총교우회·중국 우한대 총동문회 회장이 박정 의원이다. 아시아에는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문화가 있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에서 마스크 등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중국에 몰자 구매 비용 32억 원을 보낸 것은 어떤 대가나 호의에 대한 지불일 가능성이 크다.

▶ 17면에서 계속

성별·연령 등 9개 요소로 구성… 유세 때 이용해 선거 승리 큰 도움
두 개 이상 데이터 합쳐 개인식별정보 파악… 동의도 안 받고 이용
핵심 지지층·설득 가능층 구분… 어디에 살고 있는지까지 알아내



2013년 고한석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마이크로 타겟팅이란 전략에 대한 분석이었다. 연합뉴스

임하고 2019년 양정철의 요청으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되었으며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은 이근형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영입한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공천 관리를 했다. 민주당은 친문 세력과 비문 세력으로 나뉜다. 이근형은 친문 세력이 당을 장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이 35.56% 최대 주주로 있는 원지코리아컨설팅 기업을 당내 경선의 컨설팅 업체로 선정한다. 이근형은 전략기획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원지코리아 대표였다. 전략기획위원장이 되고 나서 원지코리아 대표는 박시영이 된다. 박시영도 노무현정부 홍보수석실 여론조사 행정국장 출신이다.

만 서포터스 희망돼지 사업을 기획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탄핵 후폭풍으로 17대 총선 승리를 체험했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에 들어가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관(국장)으로 일했다. 이근형이 예측한 163석과 박시영이 예상한 66% 투표율은 정확하게 4.15 총선 결과와 같다.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관세표를 제시한 이근형의 SNS 내용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켰다.

2024년 4월10일 대한민국 총선에서도 민주당 김민석은 사전 투표율 31.3%를 소수점까지 정확히 맞추는 일이 발생했다. 김민석은 82학번이고 고한석은 83학번, 양정철은 84학번으로 모두 민주연구원 출신이다. 김민석이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2017년 5월

정묵이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14곳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이동통신사 KT 데이터를 상해 데이터 센터에 공유하게 만들어 중국 기업에 데이터가 개방되게 한 것이다.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 산업과 중국과학원 이사 송승민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중국과학원 상무이사로 국내에 알려진 송승민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위원·전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거시 경제 관리 편집장·하북성 터시 부시장·국가 경제 무역 정보 센터 부국장·중국 경제 무역 가이드 잡지 사장 겸 편집장을 역임했다.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며 그는 중국 국립 디지털 자산 연구소 주주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